

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# (이종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20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1. 2. 19.

발 의 자 : 이종성 · 박성중 · 정점식  
이종배 · 김승수 · 김태호  
박대수 · 정운천 · 성일종  
서일준 · 윤두현 · 박형수  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령에 따르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기여금을 공제하고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,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그 근로자에게 체납 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음.

그러나,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체납사실을 주기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연 2회 이상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함으로써, 근로자의 연금수급권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7조제3항 신설).

##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전단 중 “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”를 “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“건강보험공단”이라 한다)이 연 2회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그 사업장의 체납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체납사실 통지에 관한 적용례) 제1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<p>바에 따라 기여금을 건강보험 공단에 낼 수 있다.</p> <p>④ (생 략)</p>	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</p>
---	--